

이승은 | 연구원 (제 7399)

- 주요 뉴스: 미국 2월 비농업고용자수, 전월비 급감.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부각
 - 미국·이스라엘, 對이란 군사 압박 및 공세 격화
 - 이란, 반격 지속 및 에너지 공급 우려 심화
 - Oracle·OpenAI, 텍사스주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중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유가 급등 및 고용시장 약화가 영향
 - 주가 하락[-1.3%], 달러화 하락[-0.4%], 금리 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중동 분쟁 격화 속 2월 고용지표가 부진하며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지정학 긴장 및 4분기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고용의 예상치 못한 감소에 따른 경기 우려가 커지며 하락
유로화 가치는 0.08% 상승, 엔화 가치는 0.1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 발표 후 낙폭 만회하며 보합 마감
독일은 중동발 따른 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에 상승
- ※ 뉴욕 1M NDF 종가 1480.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82.1원, 0.38% 상승). 한국 CDS 상승

주요지표					주요지표				
		3/6일	3/5일	전일대비			3/6일	3/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40.0	6,830.7	-1.33%	국채금리 10y	미국	4.14%	4.14%	+0bp
	유럽	598.69	604.83	-1.02%		독일	2.86%	2.84%	+2bp
	중국	4,124.2	4,108.6	+0.38%		영국	4.63%	4.54%	+9bp
	일본	55,621	55,278	+0.62%	CDS 5y	한국	26bp	25bp	+1bp
	한국	5,584.9	5,583.9	+0.02%		중국	47bp	45bp	+2bp
	달러지수	98.89	99.32	-0.43%	위험지표	EMBI+	-	271	-
유로화	1.1618	1.1609	+0.08%	VIX		29.49	23.75	+24.17%	
환율	엔화	157.78	157.59	-0.12%		WTI유	90.90	81.01	+12.21%
	위안화	6.9044	6.9114	+0.10%	원자재	구리	579.2	575.3	+0.68%
	원화	1,476.4	1,468.1	-0.56%		금	5,171.7	5,082.3	+1.7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월 비농업고용자수, 예상밖 전월비 급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

- 미국 2월 비농업고용자수는 전월비 9.2만명 감소하며 예상(+5.5만명)을 크게 하회. 1월 지표는 4천명 하향 조정(+13만→+12.6만)됐으며, 12월은 +4.8만명→-1.7만명으로 대폭 수정. 실업률은 4.4%(예상 4.3%, 전월 4.3%)로 상승
- 금번 고용 급감은 △의료 부문 파업(-2.8만명) △2월 악천후로 건설(-1.1만명) 및 레저·숙박업(-2.7만명) 부문의 위축 △AI 도입 관련 정보서비스업 부문의 감원(-1.1만명) △기발표된 대규모 해고 계획의 실행 등이 반영된 결과
-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 안정 기대가 과도했음을 지적하며 고용·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피력. Fitch 등은 전쟁 발발 에너지 가격 상승, 관세 분쟁, 고용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연준이 명확한 추세 확인 전까지 판단 유보(Deer in the headlights)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
-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을 7월로 앞당겼으며, 연내 2회 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CME FedWatch). Bloomberg 분석가는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영역에 진입한 '불편한 전개'라고 분석
- 한편, 미국의 1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2% 감소(예상 -0.3%, 전월 보합)하며 '25.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 겨울철 기상 악화로 자동차 판매가 위축(-0.9%)된 것이 영향. 이외 의류, 주유소, 보건 및 개인용품 등 13개 업종 중 7개에서 매출이 감소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이스라엘, 對이란 군사 압박 및 공세 격화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 없이는 협상도 불가하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 이란의 민주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미국이 수용 가능한 지도자 선출이 우선이라는 입장. 일일 전쟁 비용이 \$8.9억(CSIS)에 달하는 가운데, 미 정부는 주요 방산업체와 무기 생산량을 4배 늘리기로 전격 합의하며 무기 비축을 강화
- 이스라엘군은 작전의 '다음 단계' 진입 발표 직후 테헤란의 정권 기반 시설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에 공습을 감행. 또한 전투기 50여대를 투입해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군사 벙커를 해체했으며,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대부분을 파괴했다고 발표

■ 이란, 반격 지속 및 에너지 공급 우려 심화

- 이란은 바레인 소재 이스라엘 대사관과 쿠웨이트 해안의 미국 소유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보도. 한편 미국 정보기관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병력, 함선, 항공기의 위치와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
-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6일 오전 미국 원유 가격은 배럴당 \$91.09까지 상승하며 '23.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브렌트유는 8% 급등하여 배럴당 \$93.17을 기록하며 \$90선을 돌파. Barclays는 분쟁이 향후 2주간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

■ Oracle·OpenAI, 텍사스주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중단

- Oracle과 OpenAI는 자금 조달 협상 지연과 OpenAI의 요구 사항 변화로 인해 텍사스주의 핵심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 이번 협상 결렬로 Meta가 해당 부지를 임차할 기회를 얻었으며, Nvidia는 자사 칩 공급을 위해 부지 임대인(Crusoe)에 \$1.5억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Meta와의 논의를 전격 지원

■ 중국, EU 보호주의 비판 및 환율·재정 안정화 기조 강조

- 중국 상무부는 EU의 '산업 가속화법' 내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을 제도적 차별이자 보호무역주의라고 규정하며 비판. 특히 배터리·전기차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이 현지 진출 중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
- 금요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인민은행 총재는 글로벌 변동성 속 위안화의 안정 유지와 외환시장 기대심리 관리 강화 방침을 재확인. 아울러 란포안 재정부장은 낭비성 지출 근절 및 정부 수입 확대를 통한 '근검절약' 재정 운영을 강조

■ 유로존, '25년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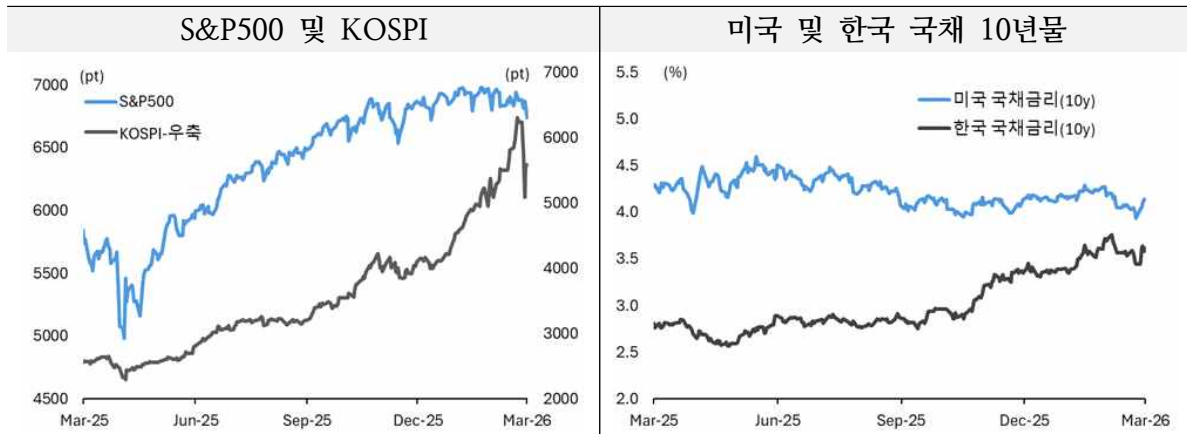
- ECB는 유로존 '25.4분기 성장률이 무역 부진으로 인해 예비치(+0.3%)를 하회한 0.2%에 그쳤다고 발표. ECB는 중동 분쟁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와 경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2주 뒤 통화정책회의에서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

주요 경제 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현지시간 기준)

-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11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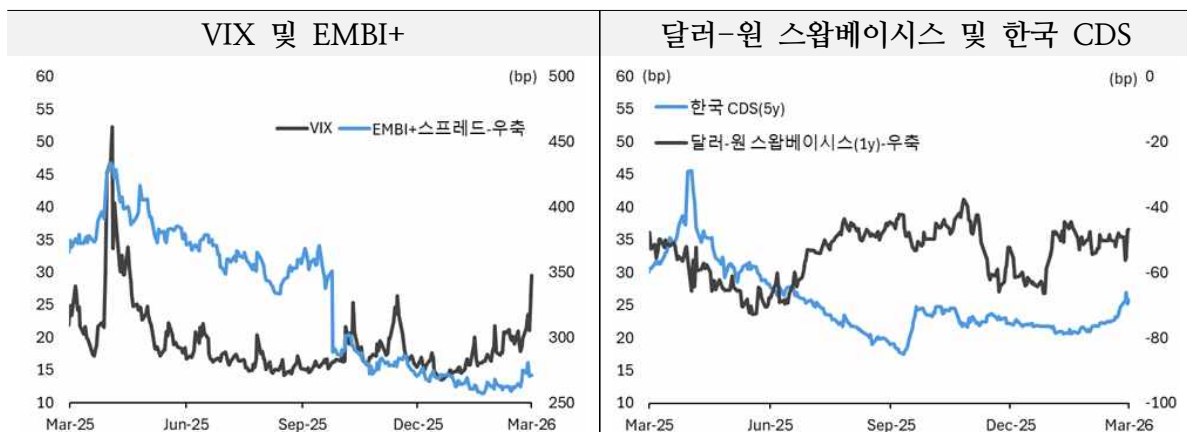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7, E-mail selee@kcif.or.kr